

III. 北韓 動靜

1. 北日 修交 協商 再開

- (합의 내용) 북한과 일본은 지난 8월 21~22일 북경에서 대사급 9차 수교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
- (수교 교섭 재개의 배경)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며 일본은 북미접근 속도에 맞추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회담 전망) 과거사 인식 및 배상액의 타협이 쉽지 않으며 한국의 견제가 예상되어 실제 수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 (수교시 북일 경협 전망) 최소 50억달러의 배상금이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투자될 것이며 일본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예상됨
- (한국의 대응) 북일 수교 협상을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대북 경협을 활성화하여 일본의 대북 경제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임

수교를 전제로 하는 대사급 본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

- (합의 내용) 북한과 일본은 8월 21~22일 이틀간 북경에서 양국의 외부무 부국장급이 참석 가운데 수교를 전제로 하는 대사급 본회담을 열기로 합의
 - 본회담 일시, 장소,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조정하기로 함
 - 북한은 일본인 처 고향방문 제 1진을 1개월 후 파견하고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를 조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각성제 밀수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명
- (수교 교섭 재개 배경)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며 일본은 북미접근 속도에 맞추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북일 수교가 절실한 형편임
 - 최소 50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의 배상금을 활용

북한은 경제위기와 식량난 극복, 일본은 정치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겨냥

과거사 인식과 배상문제는 타협이 어려우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

하고 일본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교가 기본 조건임

· 북한이 먼저 일본인 처 고향 방문을 제안하고 나오는 등 적극적 입장을 표명

일본은 북미 접근 속도에 병행하여 대북 수교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의도하고 있음

○ (회담 전망) 北日간에는 과거사 인식 및 배상 문제에 있어 타협이 어려우며 남북관계의 병행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의 견제가 예상되어 실제 수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 과거사 인식과 배상 문제는 1991~92년의 8차에 걸친 회담에서도 북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바 있음

· 북한은 일제하에서 항일 투쟁을 하였으므로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권 형태의 보상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 한국은 수교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과 협의를 통해 수교회담을 진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양보가 필요

· 일본은 북한만큼 수교의 필요성이 긴박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를 앞질러 수교하기는 어려움

○ (수교시 북일 경협 전망) 최소 50억달러의 배상금이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 발전에 투자될 것이며 일본 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예상됨

· 북일 수교시 약 50억에서 100억 달러의 청구권 자

북일수교시 최소 50억달러의 배상금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 개발에 투자될 것이며 일본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예상됨

금이 북한에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이 자금은 일본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일본 기업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금액은 주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및 기간산업 건설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소련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북한 등을 포함하는 『환일본해경제권』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높고 있어 일본 기업의 북한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북일 수교협상을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대북 경협을 활성화하여 일본의 북한 경제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응 전략) 북일 수교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성격의 문제이므로 북일 수교 협상을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대북 경협을 활성화하여 북한 경제의 대일 종속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 북일 수교는 이미 1988년 「7.7 선언」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을 인정할 때부터 예상된 사안이었음

따라서 남한은 북일 수교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남관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북일 수교시 예상되는 북한 경제의 일본 의존도 심화 및 일본의 시장 선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한은 민간 차원의 대북경협을 활성화하여 남북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시장 선점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오 삼 교)